

\\ 수가 5개로 가장 많은 스페인어학과와 한국어학과는 각각 2개와 1개씩 동아리방을 갖고 있다. 이마저도 소속이 전혀 다른 일본어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러시아어학과 동아리들과 나뉘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어학과 학생회 변형진(한국어학 2013) 부과장은 “동아리방이 있는 곳은 공용이긴 하지만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라며 “동아리들의 절대 다수가 아예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과방을 돌아가면서 쓰거나 강의실을 매번 빌린다”고 말했다. 각 학과마다 최소 3개에서 많게는 5개의 동아리가 있지만 완전하게 동아리방을 갖춘 학과는 없었다. 대부분이 1개에서 2개정도의 공용공간을 갖췄을 뿐이다. 외국어대학 학생회 진도원(스페인어학 2011) 회장은 “스페인어학과 춤 동아리는 공간이 없어 복도의 거울을 보며 연습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외국어대학 자체가 워낙 자리가 없는 상태라 도무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내비쳤다. 비슷한 상황의 체육대학 역시 소속 동아리 30개 중 15개가 공간이 없는 상태다.

그나마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타 단과대학 학도 ‘자치공간’에 관한 문제를 갖고있었다. 생명과학대학은 소속 동아리 16개 모두 동아리방이 있다. 하지만 지하 1층의 협소한 공간에 컨테이너 칸막이를 설치해 만든 이 곳은 많은 학생들이 활동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넓이다. 모든 동아리방이 한 복도에 개미집처럼 얹혀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도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다. 생명과학대학 학생회 예상진(식품생명공학 2010) 회장은 “자치공간이 비좁은 문제도 크지만, 현재 지하 자치공간은 화재 시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위험한 구조다”라며 “공간 문제에 관해 학교 측과 수차례 논의해 보았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제대학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제대학 학생회 고상현(국제학 2013)회장은 “자치공간의 대부분이 국제대학관과 멀리 떨어진 국제·경영대학관에 있다 보니, 학생들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으로써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접근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국제캠 대부분 단과대학의 동아리들은 자치공간 문제에 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실과 학생회도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공간의 부족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공과대학 행정실 송호남 행정실장은 “재정여건 상 공간관련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곧바로 큰 규모의 공간증설을 기대하긴 힘들다”라며 “현재로서는 주어진 공간 내에서 각 단과대학 별로 소속 구성원들과 상세하게 논의해 나가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1,2 1967년 완공된 정경대학 곳곳에는 갈라짐이 나타나고 있다. 3,4,5 기자재들의 노후화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문제다. 6 자치공간 몰려있는 정경대학 5층만 출창문이라 겨울철 추위에 노출돼 있다. 7 갈 곳없는 기자재는 계단에 쌓인다.

▶1면에서 이어짐

강의실과 실험·실습·실기실 그리고 전산실 등을 포함한 교육공간 대비 재적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경대학의 교육공간 1개 당 재적학생 수가 159.3명으로 서울캠퍼스(서울캠) 단과대학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정경대학의 재적학생은 총 2,548명으로 서울캠 단과대학중 가장 많다. 하지만 교육공간은 강의실 13개, 실험·실습·실기실2개, 전산실 1개로 총 16개뿐이다. 교육공간 1개당 재적학생수 2위인 음압대학(125.0명)이나, 이과대학(104.5명, 경영대학(94.0명)과도 차이가 있다.

단순히 공간이 ‘부족한’ 것만 문제가 아니다. 정경대학 공간개선TFT가 3월 한 달간 조사한 ‘건물 내부 시설물 및 기자재 현황’에 따르면 총 64가지의 문제가 나타났다. 자료의 내용은 사실 기본적인 문제들로, 창문이나 출입문의 훼손사례, 노후화된 기자재 등이다. 자료를 토대로 기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실제로 대부분의 출입문에서 큰 소음이 발생했으며, 몇 군데 출입문은 심각하게 파손된 채로 방치돼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창틀이 고장나있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도난위험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부족한 공간 문제 뿐 아니라

낙후시설 및 기자재 노후 문제 제기

기자재도 문제가 많았다. 일부 강의실에서는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 화면이 맞지 않아 컴퓨터 화면이 일부 잘린 채로 표시되고 있었고, 부서진 교탁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문제가 있는 기자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경대학 내 78개의 기자재 중 29개가 1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노후장비다.

정경대학 운영위원회와 공간개선TFT는 실태조사와 함께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도 병행했다. 특히 ‘모두의 정경’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간문제를 정경대학 학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스티커를 받은 학생이 ▲언론고시반 이전과 제2의 골방(학생회실) 만들기 ▲낙후시설 개·보수 ▲동아리방·학회실 환경개선 ▲강의실 대여시스템 개선 ▲정경대 공간대책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5대 요구안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구안을 쓰고 이를 마블판에 붙이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정경대학 학생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답한 요구안은 총 1,004표 중

493표(49.10%)를 얻은 낙후시설 개·보수였다. 정경대 공간대책 중·장기 수립이 208표(20.71%)로 뒤를 이었고, 동아리방·학회실 개선이 140표(13.94%), 언론고시반 이전과 제2의 골방만들기(10.15%)가 102표였다. 강의실 대여시스템 개선은 48표(4.78%)를 받았다.

정경대학 학생회는 실태조사와 모두의 정경 캠페인 결과 등을 종합해 지난 24일 정경대학 행정실장, 정경대학 행정 계장, 부총장실 행정과장, 기획예산팀 직원을 만나 예산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학생대표 측에서 ‘특별예산편성’을 요구했고, 학교 측의 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집행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당장의 예산 집행은 어렵지만

학생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

미래정책원 기획예산팀 황석종 과장은 “제시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부서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특별예산이 집행되기는 시간적·물리적으로 어렵다”라며 “정경대학 학생회의 요구가 타당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정경대학 공간개선을 위한 운영위와 정경대학TFT의 활동에 대해 정경대학 윌레크 행정실장은 “낙후된 기자재나 강의실 이용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지만, 다른 단과대와 합의가 필요한 언론고시반 이전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경대학 강제상 학장은 “전체 단과대학 중 가장 많은 학생이 있지만 유효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마침 이런 문제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고민하던 차에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SPACE21에 포함돼있는 ‘글로벌타워’가 완공되면 정경대만의 공간을 제공받는 안이나, 현 건물을 리모델링해 한두 층 가량을 더 증축하는 안을 고려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학생회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 4월 첫째 주 중에 부총장, 정경대학 학장 학생대표 간 3자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경대학 학생회 정대성(정치외교학 2009) 부회장은 “결과가 나오는 즉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학생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재적 학생 현황은 대학정보공시 2014학년도 2학기 재적학생 수 기준, 강의공간은 수강 신청전용 공간을 기준으로 했다.

DGIST 2015학년도 대학원 가을학기 학생모집

21C 세계 융복합 과학기술의 중심, '디지스트'에서 지식창조형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로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 원서접수 : 4.23(목) ~ 5.7(목) ■ 면접평가 : 5.25(월) ~ 6.3(수)

admission.dgist.ac.kr



세계 초일류 융복합 연구중심대학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 전공별 모집과정		
전공	과 정	
신물질과학전공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 가능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로봇공학전공	※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학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뇌·인지과학전공		
New Biology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 장학혜택 및 특전		
분 류	내 용	
납입금 면제	전원 국비장학생 선발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박사과정 : 1368만원 + @/년 석사과정 : 744만원 + @/년	
기숙사 입주	전원 입주 가능	
해외연수 실시	전공별 해외 우수대학연수 지원, 국제 심포지엄 참가 지원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박사과정 대상 100% 편입 가능	
국책 연구과제 참여	DGIST 연구원의 국책 연구과제 공동수행 한국뇌연구원 및 DUP 유치에 따른 국책연구 과제수행	
※ 전공별 특성화된 장학혜택은 각 전공 홈페이지 참조		
전공 오픈랩		찾아가는 입학설명회
■ 일 시 : 4.11(토) 11:30 ■ 참가대상 : 대학교 3,4학년 및 대학원 재학생 ■ 신청방법 : DGIST 입학 홈페이지 사전신청 (admission.dgist.ac.kr) - 4(비수) 18:00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참가가능 ■ 참가자 지원사항 : 간단한 중식 및 기념품 제공, 사립교통비 지원, 사립교통편 제공		어느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의 소단위 그룹을 구성하여 신청하면 입학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전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DGIST 입학 홈페이지 신청 (admission.dgist.ac.kr)

입학팀 _ [053]785-5146 E-mail : admission@dgist.ac.kr